

1000만 그루 나무심기 프로젝트 ‘첫발’

전주시, 도시계획·환경 전문가 등 초청 간담회 열어
도시전체 정원으로 만드는 가든시티 조성 방안 논의

전주시가 지난 20일 환경단체와 도시계획 전문가, 지역 화훼인, LH 등 관련 공공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민선7기 첫 결재사업인 ‘맑은 공기 도시, 가든 시티(Garden City)’ 조성을 위한 1000만 그루 나무심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전주시민들과 함께 추진하는 1000만 그루 나무심기는 단순한 도심녹화 운동이 아닌 미래 주역인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도시를 물려줄 것인가? 하는 물음에서 시작된 사업으로 단 1평의 땅이라도 있다면 나무를 최우선적으로 심어 도시 전체를 정원으로 만들어 시민들이 맑은 공기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가든시티로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이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에서 미세먼지가 심각한 도시 중 하나인 전주를 미세먼지 걱정을 덜고 열섬현상으로 인해 대한민국에서도 더운

지역에 속하는 전주를 시원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맑은 공기 가든시티 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시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향후 추진계획에 반영하고 이후에도 관련 전문가와 환경단체,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이번 프로젝트를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다.

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우리 주변 곳곳에 시민과 함께 나무를 심고 가꾸어 나간다면 전주가 미세먼지 걱정 없이 시민들이 숨쉬기 편한 녹색도시,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가든 시티가 될 것이다”며 “전문가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1000만 그루 나무심기를 실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가 지난 20일 환경단체와 관련 공공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민선7기 첫 결재사업인 ‘맑은 공기 도시, 가든 시티(Garden City)’ 조성을 위한 1000만 그루 나무심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전주시와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지난 20일 미국과 중국, 프랑스, 뉴질랜드 등 전 세계 16개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한글학교 교육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재외동포 한국전통문화연수’ 프로그램의 입교식을 가졌다.

전주서 대한민국 전통문화 배운다

전통문화전당, 한글학교 교육자 대상 전문가 특강 열어

전 세계 곳곳에서 한글 교육과 한국문화 보급에 힘쓰는 재외동포 한글학교 교육자들이 전주에서 대한민국의 전통문화를 배운다.

시와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지난 20일 미국과 중국, 프랑스, 뉴질랜드 등 전 세계 16개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한글학교 교육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재외동포 한국전통문화연수’ 프로그램의 입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재외동포연수 사업은 시와 전당이 지난 2016년부터 기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추진해왔으며 지난해부터는 한글학교 교육자까지 대상을 넓혔다.

이들은 19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우리나라의 언어, 문화, 역사, 음식에 대한 전문가 특강을 청취하고 사물놀이와 부채춤, 소고춤, 한산춤 등의 전통문화체험을 하며 이

들이 자국의 한글학교로 돌아가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입교식에서는 김승수 전주시장이 직접 강사로 나서 △구도심 아시아문화심장터 100만평 프로젝트 △총합경기장을 중심으로 한 덕진권역 뮤지엄밸리 등 전주의 시장철학을 소개하고 ‘인간적인 도시의 조건’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서배원 시 문화정책과장은 “머나먼 타국에서 우리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지키는데 앞장서고 있는 한글학교 교육자 여러분들의 전주방문을 환영한다”며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소중히 지켜온 전주에서 즐겁고 유익한 연수가 되길 바라고, 고국으로 돌아가 전통문화의 도시 전주를 홍보하는데 앞장 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라돈측정기’ 시민대여 서비스 시행

전주시, 불안감 해소·안전한 생활환경 제공 위해 대여키로
기준치 초과한 라돈 측정될 경우 폐기·추가 피해 예방 안내

최근 국내 한 침대업체의 매트리스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전주시가 라돈측정기 대여 서비스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시중에 유통된 매트리스 29종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라돈

이 검출됐지만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고가인 관계로 개인이 구입하기는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라돈측정기 15대를 구입해 시청 환경위생과와 완산·덕진구청 생태공원녹지과에 각각 5대씩을 배치해 시민들에게 대여해줄 예정이다.

대여비용은 1,000원으로 1박 2일 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시청 환경위생과(063-281-2328) 또는 완산·덕진구청 생태공원녹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동시에, 시는 라돈침대 대응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측정 결과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전문업체에 의뢰 할 계획이며 피해 예방을 위해 매트리스 폐기와 안방·거실 등의 환기를 유도 할 방침이다.

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라돈 노출에 따른 시민들의 막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안심하고 생활토록 서비스를 시행한다”며 “라돈은 공기보다 가벼운 만큼, 환기를 잘 시켜주는 것이 피해예방을 위한 최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라돈이 검출된 침대 매트리스 폐기 절차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생활방사선안전과(02-397-7314)로 전화하거나 기술원 홈페이지(www.kars.re.kr)를 통해 방시능 차단 비닐을 신청한 후, 매트리스를 밀봉, 보관하면 해당침대 회사 측에서 수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미취학아동 대상 ‘건강새싹 프로젝트’

전문 강사들이 실습과 게임 통해 자발적인 참여 유도
체력 향상과 자신감·창의력 증진에 도움 줄 것 기대

전주시보건소(소장 송준상)는 미취학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위해 ‘건강새싹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건강새싹 프로젝트는 영양, 신체활동, 흡연·음주 예방을 주제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 강사들이 실습과 게임 등을 통해 어린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어린이들의 체력 향상과 자신감·창의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시 보건소는 20일 어린이집과 유치

원 원아 등 미취학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번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식품자전거를 이용한 식품모형 만들기 △아침 결식예방 △편식교정 교육 등의 영양교육 △술과 담배의 해악성 교육 △건강검진 등을 운영했다.

보건소는 지난해 448개소 2만229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매년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이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주민 삶의 질 향상 위해 나선다

덕진지역자활센터, 전주시네마타운과 협약
영화 활용한 인문 프로그램·심리치료 제공

전주시 덕진지역자활센터가 자활사업 참여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문학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나섰다.

센터에서는 지난 20일 전주시네마타운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평소 인문학을 쉽게 접하지 못한 자활근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삶의 활력소를 되찾아 주기 위해 영화로 이해하는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자활사업 참여주민들의 자존감 회복을 위해 영화를 활용한 인문 프로그램 지원과

다양한 실천 행사 공동 참여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올해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모사업에 선정돼 운영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10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전주시네마타운에서 진행되며 참여자들은 영화 관람 후 현장에서 인문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다.

덕진지역자활센터 관계자는 “인문학은 사회적 관계 속에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과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힘이 있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현장 의정활동 나서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위원장 백영규 의원)가 지난 20일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지역 현장 활동에 나섰다.

위원회는 이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을 찾아 7개분야 29개 주요사업에 대한 현황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백영규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시설관리공단은 전주시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주요 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 공공기업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위원회는 또 평화동 남부생활권 체육시설 조성 예정지를 방문해 사업추진 현황과 문제점 등을 청취하고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백 위원장은 “전주시의회에서도 지방공기업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공단업무의 효율성과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지속적인 현장방문활동을 통해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항상 노력하고 연구해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